

“연구중심대학 조성, 지역인재 우선 채용”

국회 교육위원회, 전북대·도교육청 국정감사

김동원 총장, 민형배 의원 제시 ‘거점국립대 회생방안’에

서거석 교육감, ‘기후위기 대응교육 관련 교사 충원’에 “도내 작은학교 통폐합 통한 환경교육 교사 충원 가능”

2022년도 정기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12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에는 전북대학교 오후에는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정경희 의원은 전북대를 향해 국립대 교수 출신인 모 교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국가사업연구비 횡령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논문 대필 의혹도 언급했다.

이에 김동원 총장은 “결국은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위반사항이 있으면 징계나 해임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박광은 의원은 로스쿨 출신 법관 임용은 고루 분포돼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역 편중이 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지역 대학

출신 의무 모집이 실행되지만 사실 지역인재 할당이 광주, 전·남북 합해 15% 내외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대 로스쿨은 신입생 86명 중 전북대 출신 1명, 전주대 출신 1명이라고 했다.

서동용 의원은 조교들은 신분이 불안정하고 많은 일은 많다고 지적하면서, 전북대학교에는 현재 179명의 조교가 있는데 이들의 근무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가 50.8%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총장은 민형배 의원이 제시한 거점국립대 회생방안에 대해 연구중심대학으로 만들고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열린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은 학교급식 관리자 퇴사 현황이 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2021년 214명을 신규 채용해 이 중 48명이 중도 퇴사해 22.4%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국감 서서

전남대·전북대·제주대 각 총장과 대학병원장들이 12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202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서서하고 있다.

박광은 의원의 기후위기 대응교육과 관련한 교사 충원방안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은 작은학교가 많은데 이들 학교의 통폐합을 통한 환경교육 교사를 충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권 침해와 관련해 성폭력은 전국 3위고 반면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실적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의원은 교권 침해 행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익산 모 초등학교 교사의 경정계 처분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의 입장을 요구했

다. 이에 서 교육감은 현재 재심의 중이라면서, 교권보호 차원에서 해당 교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해 자문변호사를 고용하고, 소송 비용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용 의원은 학급 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교원 선발 계획이 줄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도 초등 63명, 중등 142명의 교원 정원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교원정원 확보

방안에 대해 기재부를 설득해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교육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권은희 의원은 개발지구 내 신설 초등학교 과밀 현상을 지적하면서, 특히 전북 지역에서 학교생활 만족도가 전국 평균을 밑돌아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추가 자료제출 등 국정감사 중에 미비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종합감사가 오는 21일 실시된다. /정은성 기자

유·초등 교원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8.8대 1

유치원 교사 22명 모집에 474명 지원 21.5로 가장 높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평균 경쟁률이 8.8대 1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가 22명 모집에 474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21.5대 1, 초등교사는 45명 모집에 108명이 지원해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특수교사의 경우 유치원은 2명 모집에 15명이 지원해 7.5대 1을, 초등교사는 10명 모집에 99명이 지원해 9.9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제1차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및 시험장소 등은 11월 4일 도교육청 누리집(www.je.go.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LINC 3.0사업단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간담회

전주비전대학교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단(LINC 3.0)은 12일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성과관리를 위한 중간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업단은 지난 7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8개의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를 선정 총 2억6천만원의 사업 예산을 투입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8개 과제의 책임교수 및 참여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의 사업비 집행현황과 사업성과의 관리, 사업결과물에 대한 기술이전과 사업화 방안, 재직자 교육과 기업연계 캡스톤디자인으로의 성과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최승훈 LINC 3.0 사업단장은 “산학공동 간담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산업체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문대 LINC 3.0 사업에서 처음 시행되는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산업체와의 상생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6일 참조내(별관) 회의실에서 ‘장애학생 사명 조사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로 고민 상담, 도움되셨나요?’

전주대, ‘찾아가는 청년센터 심층 상담 Day’ 실시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이상행)는 12일 스타센터 244호 및 잡카페 일대에서 ‘찾아가는 청년센터 심층 상담 Day’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청년이음전주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주대 재학생과 졸업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들의 진로 고민과 취업 스트레스 해소, 다양한 청년정책과 공간 활용 안내 등 청년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잡케어(지능형 직업상담 지원 서비스) 기반 진로 취업 상담 △집중 컨설팅 3종(이미지제이킹, 퍼스널 컬러, 강점찾기) 프로그램 △전주시 청년지원 사업 안내 등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스스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이상행 센터장은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심층 상담 및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청년들이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업 상담 △집중 컨설팅 3종(이미지제이킹, 퍼스널 컬러, 강점찾기) 프로그램 △전주시 청년지원 사업 안내 등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스스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이상행 센터장은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심층 상담 및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청년들이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입학과 동시에 기초부터 실무까지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원스톱 영어영향상반’ 개설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가 호텔 실무에서 필요한 영어 능력 배양을 위해 ‘원스톱 영어영향상반’을 개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어회화반과 ‘기본문법반’, ‘토익문제풀이반’과 ‘영어독서반’ 등 4개 영어영향상반을 개설해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따로 학원에 가지 않고 교내 학과 내에서 실무 영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수업은 호텔경영학과 교수진이 직접 진행한다.

영어회화반은 2개 반으로 나눠 미카엘 교수와 카피오 교수가 맡고, ‘기본문법반’은 안세길 교수가, ‘토익문제풀이반’은 임현정 교수, ‘영어독서반’은 심영국 교수가 각각 맡아 수업을 진행한다. /정은성 기자

수업은 한 학기 주 1~2회씩 진행한다. 4개 영어 향상반 수업을 모두 신청하면 학원에 다니지 않고서도 일주일 내내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는 영어영향상반과 함께 영어 멘토 선배들이 1~2학년 학생들과 수시로 만나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English Zone’도 운영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공존과 조화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바이러스

내달 29일까지 과학교육원 전시체험관서 ‘바이러스의 고백’ 특별 기획전 개최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원장 김정욱)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전시체험관 1층 특별기획실에서 인간과 공존해 온 바이러스를 탐구하는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은 공존과 조화, 낯선 만남과 경쟁, 혼란과 갈등, 균형과 연결이라는 총 4개의 시선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러스가 자연계의 일원으로서 인간과 오랫동안 공존해 온 이야기부터 시작해 인간과의 갈등으로 생긴 거대한 혼란, 그 속에서 바이러

스가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가 생각하도록 했다.

특히 말초를 해독하라’라는 방탈출 미션으로부터 시작된다. 2042년 지구온난화로 출현한 괴물-바이러스를 퇴치하고자 미래 과학자가 ‘변역력 씨앗’을 요청한 다. 바이러스 전시체험관 곳곳에는

그 변역력 씨앗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숨겨져 있다. 관람객들이 단서를 찾아 암호를 해독해 변역력 씨앗을 찾아 방을 탈출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여 관람객의 흥미까지 한층 더하고 있다.

무료 관람으로 매일 6회씩 운영된다. 개인의 경우는 현장 접수로, 10명 이상 단체의 경우는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을 통해 체험이 가능하다.

김정욱 원장은 “특별기획전을 통해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과 성찰의 시간이 될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학생·교수 교류, 학습프로그램 공동 운영

전주교대-美 인디애나주립대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총장 크리스토퍼 울슨)와 학생 교류 및 공동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박병춘 총장과 서현석 기획처장은 협약을 위해 미국을 직접 찾아 인디애나주립대학교 총장과 관계자를 만나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학술교류 △학생·교수 교류 및 학습프로그램 공동 운영 △공동 석사학위과정 운영 △교사 양성 교육과정 및 학생 교류 △교육·연구프로젝트 개발 등이다.

한편, 박 총장 일행은 인디애나주립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마친 후 현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사카고 한국교육원과 초등교육 현장을 방문했다.

박병춘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



전주교육대학교는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와 학생 교류 및 공동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로 양 대학의 학생 교류와 연구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재학생의 외국어 실력뿐 아니라 초등교육 현

장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국제화 감각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관 아무르관, 페스티벌관 총 4개의 관으로 구성해 가이드들이 작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성악가들과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함께 공연했다.

이날 상생 음악회에는 약 100여 명이 참석해 공연을 관람 재학생과 지역주민에게 폭넓은 문화 향연 기회를 제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다.

박병춘 총장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클래식 뮤지엄 콘서트’ 성료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1일 황학당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음악회 ‘클래식 뮤지엄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전주교대와 전주상악 아카데미가 공동으로 2022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음악교육과 정현주 교수가 기획했다.

클래식 뮤지엄은 세인트관 누와르